



NEWS LETTER

2019년 12월 30일 Vol. 361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응급의료기관 대상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 등 총 3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종별 법정 의무사항,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료 이정훈 실장은 “응급실 진료에 여러 진료과와 간호부, 그리고 행정부서 등 많은 도움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며 더불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응급의료 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9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여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본원은 구연발표, 포스터발표 영역에서 총 10건의 초록발표와 3건의 초록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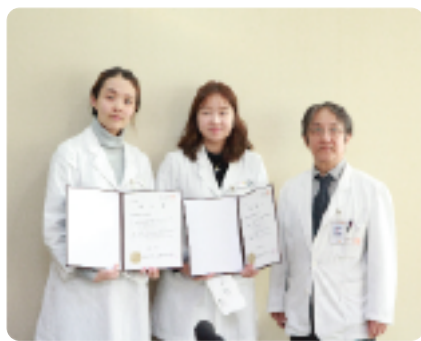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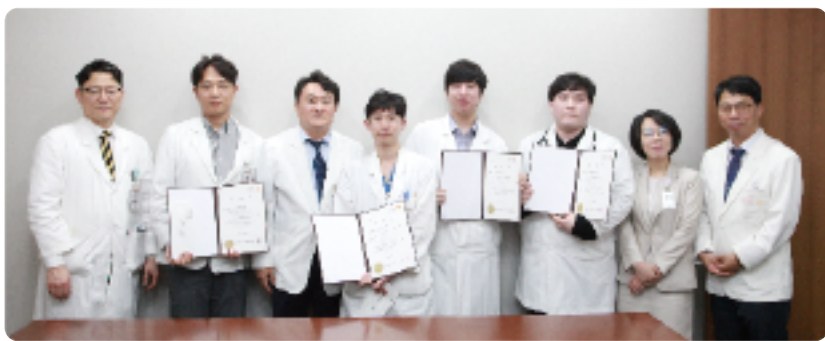
이날 호흡기내과 강윤성 교수는 ‘신속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안전 보장활동’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으며, ‘병동 입원환자 화재예방 안전관리 활동’을 발표한 김은희 수간호사와 ‘감염관리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감염관리 인지도 향상 및 신생아중환자실 감염발생률 감소’를 발표한 이상미 간호사가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의무기록 우수과 및 우수의 표창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무기록팀은 지난 11월 25일 2019년 한해 의무기록 작성이 우수한 진료과와 우수의 선정을 위한 EMR 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의무기록 우수과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선정됐으며, 우수의는 내과 유승헌 전공의, 안과 이강민 전공의, 이비인후과 장욱 전공의가 의무기록 우수의에 선정됐다. 또한, 한방병원 우수의는 한방내과 송주연, 한방재활의학과 심혜윤 전공의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과와 우수의에게는 각각 표창장과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 했다.



연말을 맞아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선물

지난 12월 23일 개인 기부자가 7층 소아 병동을 방문해 직접 만든 모자 선물을 입원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김동익 교수)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 여고생 이 건강하게 퇴원해 연말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으로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모자를 기부한 학생은 기부 소감으로 “병원에서 뇌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모자였다”라며 “어린 환아들이 저처럼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며 직접 모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